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종교의 의미

정미진(경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알레고리적 장치로서의 종교 |
| 2. 종교의 맹목성과 정치성 비판 | 4. 나오며 |

1. 들어가며

나름 이병주(1921~1992)는 평소 다방면의 책 읽기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그의 독서 편력은 유명한 것이었으며 이는 칼럼과 에세이를 통해, 그리고 소설에 인용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발자크’라 불리며 엄청난 집필량을 자랑했던 이병주는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통해 생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꾸준히 드러냈다. 그런 그의 작품은 작가 자신이 지나 온 삶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기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배인 서사와 세태소설 혹은 대중소설로서 당대 지식인을 주체로 내세워 현실 문제를 다룬 서사가 주를 이룬다. 다양한 현실 문제 중에서 특히 이병주가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와 사랑의 문제이다. 흔히 알려진 바대로 『관부연락선』과 『지리산』등에서는 지나온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로서의 소설 쓰기를 지향해 온 한편, 『행복어사전』과 같은 소설에서는 당대의 상황을 대중적으로 엮기도 하였다. 대중소설에 나타난 그의 관심은 주로 남녀

간의 연애 문제에 집중해 있는 듯 하지만 당대의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는 요소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¹⁾

그동안 이병주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작품이 가지는 성과가 고르지 않으며, 정식 등단 절차 없이 문단에 데뷔해 줄곧 독자적인 노선을 지켜온 그가 동일한 작품을 제목만 바꿔 다른 지면에 연재한다거나, 동일 작품을 제목만 바꿔 재출간하기도 하고, 작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중복으로 간행하는 등 일반적인 출판 윤리나 전통과는 별개의 활동을 꾸려온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 그러던 것이 2005년 이병주기념사업회 설립과 2006년 이병주 전집 발간 등을 계기로 이병주의 문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병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초기 단편이나³⁾ 그의 대표작이라 손꼽히는 『관부연락선』⁴⁾, 『지리산』⁵⁾에 집중

1) 이병주의 주요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일제 말기부터 6·25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자신의 학병체험과 전쟁체험을 기반으로 한 시대의 증언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향』(1970~1971), 『그들의 향연』(1986~1987)에서는 당대 기업의 생리와 경제적 여건 등이 그려지고 있으며, 『폐자의 관』(1971), 『산하』(1974~1979)에서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선거 풍경이 가감 없이 다뤄지기도 한다.

2) 안경환, 『이병주와 그의 시대』, 『2009 이병주 하동 국제 문학제 자료집』, 이병주기념사업회, 2009, 36면 참고.

3) 김병로, 「다성적 서사담론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확장성 연구」, 『한국언어문학』36, 한국언어학회, 1996; 김중희, 『이병주의 「소설 · 알렉산드리아」 고찰』,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고인환, 『이병주 중 · 단편 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자의식 연구』, 『국제어문』48, 2010; 이호규, 『이병주 초기 소설의 자유주의적 성격 연구』, 『현대문학의연구』4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음영철, 『이병주 중단편소설에 나타난 포함과 배제의 정치성』, 『한민족문화연구』44, 2013; 이광호,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테러리즘의 문제』, 『어문연구』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4) 이형기, 「소설 「관부연락선」과 40년대 현대사의 재조명」, 『한국현대 작가 연구』, 문학사상사, 1991; 조갑상,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현대소설연구』1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강심호, 『이병주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정호웅, 「해방 전후 지식인의 행로와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김외곤, 「격동기 지식인의 초상-관부연락선」, 『소설과 사상』, 1995; 박상인,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의식 고찰』, 『인문연구』6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최현주,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배달말』48, 배달말학회, 2011.

5) 임현영, 「현대소설과 이념문제-이병주의 『지리산』론」,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정호웅, 『지리산론』,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정찬영,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지리산』론」, 『문창어문논집』36, 문창어문학회, 1999;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집』2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이동재, 「분단시대의 휴머니즘과 문학론-이병주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24, 한국

되고 있으며, 이병주에 대한 평가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대부분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으며 그런 과정 안에서 상처받은 개인으로 등장한다.⁶⁾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폭압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며 역사가 강요하는 선택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다.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이병주의 인식은 소설에서 끈질기게 다루어졌으며, 이것이 비단 특정한 정치 상황이나 시대의 조류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주 소설의 몇몇 인물들은 종교에 헌신하고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냉소적임을 알 수 있다. 종교를 둘러싼 갈등 관계가 핵심 서사로 부각되어 나타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주의 소설에서 종교에 관한 문제는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문제적인 것은 이병주가 바라보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비단 종교 그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소재가 여러 작품에서 일관된 의미를 갖는다면 그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여기에 주목해서 출발한다. 우선 이병주의 소설에서 종교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병주의 소설에서 가지는 의미를 궁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종교’는 이병주 소설을 읽어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종교’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삶 그 자체를 기록하고자 했던 이병주의 문학적 태도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다.

2. 종교의 맹목성과 정치성 비판

2.1. 맹목적 믿음에 대한 냉소

이병주의 작품에서 몇몇 인물들은 지나치게 종교 편향적인 성향을 보인다

현대소설학회, 2004; 박종렬, 「실록소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론」, 『현대문학이론연구』 29,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6.

6) 데뷔작인 『소설·알렉산드리아』의 서술자 ‘나’의 형은 자신의 사상을 담은 논설 두 편으로 영어의 몸이 되었고, 『관부연락선』의 유태림은 6·25 전쟁 당시 남한군과 북한군에 의해 각각 고초를 겪는다. 『지리산』의 박태영 역시 공산당에 입당하지만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서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인물들, 특히 여성 인물들의 경우 종교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예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내일 없는 그날』⁷⁾의 경숙은 남편 형수를 구하기 위해 윤철에게 여성을 유린당하고 집을 나와 친구 미야의 양재점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 미야의 문란한 성생활은 경숙에게 괴로움을 선사하는데 그런 괴로움은 “지옥 이상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미야의 방에 미야의 애인인 문호가 와 있는 날 밤이면 죽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성서에 매달린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녀가 속살거리는 소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난 젊은 여인에게서는 죽음만큼이나 강한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

경숙은 틈만 있으면 성서를 읽었다. 성서를 읽는다고 해서 절망의 심정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건 물에 빠진 자가 잡는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경숙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게 되면서부터 스스로의 고민을 인생 전반의 고민에까지 결부시켜 이 고통을 견디면서라고 살아갈 보람을 찾아야겠다는 아련한 의욕도 생겼다. 부활의 신비도 알 수 있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죄밖에 없는 예수, 가난한 자와 고민하는 자를 사랑하고 박해와 혼탁의 세상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목마르게 갈망한 죄밖에 없는 그였다.⁸⁾

“아버지여, 아버지는 무소불능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떼어주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종용(從容)히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이 마음의 천분의 일이라고 배우고 싶은 경숙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 영근이와 영미의 생각이 나기만 하면 마음의

7) 1957년 8월 1일부터 1958년 2월 25일까지 『부산일보』에 연재된 이후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1989년 문이당에서 출간된 『내일 없는 그날』을 대상으로 삼았다.(세간에 이병주의 등단작은 1965년 7월 『세대』에 발표한 『소설 알레산드리아』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병주의 소설 쓰기는 1957년 8월에 『부산일보』에 『내일 없는 그날』을 연재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이병주 자신은 『내일 없는 그날』에서의 소설 쓰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내일 없는 그날』은 이후 이병주 소설이 갖는 특징적인 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선진(『이병주 소설의 원형으로서의 『내일 없는 그날』』, 『인문학연구』 제21호,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8) 『내일 없는 그날』, 161면.

평정은 단번에 깨지고 말았다.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꿈틀거리는 육체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⁹⁾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는 것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절망 속에 휩싸였던 경숙에게 생애의 의지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성서이며 종교였다. 그저 행복만을 꿈꾸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었던 예수의 삶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미로서의 그리움, 본능적이라 할 수 있는 육체의 욕망 앞에서 경숙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종교의 힘을 빌려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나 종교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그 믿음이 공고한 형태가 아니었음은 형식과 비연의 관계를 오해한 경숙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결말을 통해 드러난다.

한편 『비창』¹⁰⁾의 고진숙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등장한다. 서울발 대구행 버스 안에서 우연히 구인상과 마주친 고진숙은 옛 연인의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고진숙이 버스 안에 버린 꽃다발을 구인상이 챙겨준 것을 인연으로 구인상은 고진숙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진숙뿐 아니라 그녀의 모친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천주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아버지인 고제봉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고제봉은 아내가 독실하게 믿는 천주를 향해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거기에 발끈한 아내는 고제봉을 심하게 구박한다. 겨울밤임에도 술에 취한 고제봉을 집에 들이지 않으려 하는데 고진숙 역시 어머니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는 한편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숨기지 않는다.

“어머닌 아버지가 직장을 얻지 못한대서 나무라는 게 아녜요. 돈을 못 번다고

9) 위의 책, 162면.

10) 1984년 한국펜문학상 수상작으로 1984년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나’(구인상)는 아내 이미숙의 외도로 생각을 정리할 겸 대구로 내려와 카페 마담인 명국회를 만난다. 그녀가 가진 해안에 매료된 ‘나’가 감동하는 와중에 아내 이미숙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기병열의 처 진숙영이라는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는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진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자신의 원래 성인 ‘한’을 되찾으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교수직을 그만둔다.
이 글은 1992년 신장판을 대상으로 한다.

타하는 것도 아녜요.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해도 좋으니 천주님께 대한 신앙만 돈독하면 받들어 모시겠다는 게 어머니의 진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신앙을 가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가끔 천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점에 질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아버지가 천주님에게 대한 신앙만 똑똑히 가지고 계신다면 전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겠어요. 그런데 걸핏하면 천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존대하여 모신다면 천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진 딱해요. 참으로 딱해요.”¹¹⁾

고진숙과 고진숙의 모친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가치는 천륜이나 윤리가 아니라 ‘천주님’이다. 그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홀대하는 이유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천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정할 정도로 천주에 대해 강한 믿음을 보였던 고진숙은 구인상에 대한 사랑이 좌절되자 구인상에게 “천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노릇이지만 제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천주님은 결국 용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다.¹²⁾

경숙과 고진숙의 자살 시도는 일반적인 도덕률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도 어긋난다. 흔히 교회에서 자살은 그 행위 자체로서 본질적인 악으로 인식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가톨릭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이 계명에서 살인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잘 보존해야 하는 관리자의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자살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동시에 하느님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¹³⁾ 이처럼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며, 그래서 천륜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던 종교가 엄격하

11) 『비창』, 57~58면.

12) 고진숙의 이후 행방은 더 이상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고진숙의 아버지인 고제봉이 구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뿐이다.

13) 우재명,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 분석과 가톨릭 교회의 대처 방안」, 『사목정보』5, 2012, 75면 참고.

게 급하고 있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산하』¹⁴⁾의 송남희는 철학도 이동식과 우연한 계기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말끝마다 ‘천주님’을 내세우고 세상의 모든 일이 천주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송남희와 이동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이동식이 천주의 부름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유로 송남희는 번번이 결혼을 거부하고 이동식을 성당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이동식이 송남희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같이 지내기까지 하지만 서로의 고집을 꺾지 못해 둘의 결혼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던 것이 백범 김구의 장례식날 돌연 송남희가 결혼을 승낙하고 이에 이동식이 세례를 받기로 하면서 결혼이 성사된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를 이동식에게 강요하던 송남희의 태도는 결혼 이후까지 계속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보다 천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송남희가 막상 결혼이 성사되자 “부부는 일신”이므로 자신이 성당에 가면 이동식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종교를 강요했던 지난날의 태도를 급작스레 철회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일 없는 그날』, 『비창』, 『산하』에 등장하는 종교의 문제는 여성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종교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여성인물들은 정결하고 순정적이며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교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맹목적이라 할 만큼 종교에 의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스스로 종교의 교리를 저버리거나 주위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에게 종교는 그저 하나의 명목에 불과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종교에 맹목적인 인물들의 주위에 있는 남성 인물들은 하나 같이 종교에 대해 냉소적이다. 이병주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식인이기도 한 이들은 여성의 맹목적인 믿음에 거부감을 표시하는가 하면 냉소하기도 한다. 『비창』의 구인상은 역사철학을 전공한 교수로 고진숙의 집에서 하숙을 하는 동

14) 1974년 1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신동아』에 연재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6년한길사에서 간행한 이병주 전집에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안 종교를 둘러싼 집안의 갈등을 지켜보며 “지옥”을 떠올린다.

“그런데 영감님의 말씀엔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책임이지 천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쟁을 비롯한 일체의 악을 취약한 인간성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그 취약한 인간성을 구제하기 위해 천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신앙 아니겠습니까?”¹⁵⁾

세상에 굳이 남에게 권할 수 있는 신앙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주의와 사상이 있을 수 있을까. 어째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주관만으로 남의 정신세계를 비집고 들어서려고 하는 것일까.

구인상은 진숙의 성의를 의심할 수 없는 그만큼 진숙의 태도를 안타깝게 여겼다. 세상은 호의가 마구 통할 수 있는 곳도 아니며 호의라고 해서 마구 휘둘러도 좋은 것도 아니다.¹⁶⁾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인상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천주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사사건건 가족과 부딪치는 고영감에게 신앙은 “취약한 인간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앙과 사상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남의 정신세계를 비집고 들어서”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상은 꾸준히 자신을 찾아와 종교를 권하는 고진숙을 보며 종교에 맹목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태도에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산하』의 이동식 역시 철학을 전공한 교수이다. 그는 우연히 만난 송남희가 한눈에 자신의 여자가 될 것을 직감하지만 세상사를 판단하는 모든 준거로 천주님을 내세우는 송남희에게 적잖은 반감을 가진다. 그래서 자신에게 만나자는 청을 하고서 만나자마자 죄의식 때문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자는 송남희를 보며 “어이없음”을 느낀다.

15) 『비창』, 68면.

16) 위의 책, 75면.

영문학을 공부한 지식여성이 저처럼 천주에의 신앙에 몰두할 수 있을까. 동식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동식은 그 언젠가 비원에서 만난 미술동맹원이 라고 자칭하던 여자 화학생을 상기하고 송남희와 대비해보았다. 그 여학생은 공산주의 사상을 맹신하고 있었다. 송남희는 천주님을 맹신하고 있다. 둘 다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정열적이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차이란 무엇일까?’

조그마한 우연? 조그마한 계기? 조그마한 씨앗? 혹은 선천적인 성격의 차이? 교육의 탓?

동식의 눈으로선 두 여성 다 미망迷妄의 소산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이나 신념이 모두 미망의 산물이란 것은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¹⁷⁾

이동식은 종교를 맹신하는 송남희를 보며 과거에 만난 미술동맹원 여학생을 떠올리기에 이른다. 둘은 그 대상이 다를 뿐 각각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정열적”으로 신앙과 사상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식은 그들이 맹신하는 대상인 신앙과 신념을 “미망의 소산”이라고 단정한다. 이동식은 지난한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것도, 적절한 포즈를 취하지 않는 것도 고통이라고 여겨 “세상사에 관한 관심은 포기하고” 관망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맹목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이든 신념이든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다.

2.2. 유사종교를 통한 종교의 정치성 비판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소위 토착종교는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종교를 신도, 불교, 기독교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유사종교’로 규정하고 탄압한다.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의 자생 신종교를 모두 유사종교로 규정함으로써 탄압하고 해체시켰던 것이다.¹⁸⁾ 반면

17) 『산하』2, 219~220면.

18) 권동우,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화와 신종교』, 『신종교연구』 28, 한국신종교학회, 2013, 112~113면 참고.(이 글에서 ‘유사종교’라는 용어는 가치판단이 배제된 것이며 대상 텍스트인 『행복어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일제에 의해 정통 종교로 인정을 받은 기독교는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군정에 의해 지배받는 신탁통치로 이어지는 동안에 세를 공고히 하게 된다. 미군정은 소련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친미·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웠고, 이러한 통치전략에 동조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종교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이때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손잡고자 하였던 것이 반공의 논리에 엄격하였던 기독교였다. 일제강점기에도 근근이 맥을 이어오던 소위 유사종교는 미군정 이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온 ‘유사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특별한 반성이나 검토 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⁹⁾

『행복어사전』²⁰⁾의 서재필이 신문사 교정부에서 만난 윤두명은 여러 가지로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그는 “관직에 들어선 안 된다”는 것과 “옥황상제를 믿고 그 믿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할머니의 유언에 의해 옥황상제교를 믿고 상제교의 교조로서 그 믿음을 포교하기 위해 헌신한다.

“옥황상제교가 우리나라 고유의 샤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미신 취급을 하는 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신앙은 원래 토속적인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풍토와 정신적 환경에 대한 조정과 외포와 사랑의 발현이 곧 기본적인 신앙이 아니겠소. 인도의 불교나 유대의 예수교만이 정통적인 신앙이고 옥황상제교가 우리의 토속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미신으로 생각하는 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신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고통을 겪어오고 게다가 원수를 갚아야 할 의무까지 결들인 사람이 신앙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강한 은총을 주는 신은 옥황상제를 두곤 없습니다.”²¹⁾

19) 위의 글, 113~115면 참고.

20) 1976~1982 『행복어사전』의 주요 인물 서재필은 한국 첫 번째로 손꼽히는 명문대학을 4년 내내 수석으로 다니다가 졸업한 지식인이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은 신문사의 교정부원이다. 서재필은 권력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소시민이 되기를 자처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신문사 교정 부원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 습작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유사종교, 반공정책 등의 사회 문제와 로맨스가 펼쳐진다. 이 글은 2006년 한길사에서 간행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풍토도 풍습도 취향도 다른 나라에서 자란 종교를 믿어 광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토속적 종교라면 우리의 생리나 병리에 잘 맞을 것 아노. 어떤 종교라도 종교에 관한 한 문외한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닌 것 아닐까?”²²⁾

『행복어사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1970년 중반 무렵이며,²³⁾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증가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어 한국 종교계의 주도적 종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²⁴⁾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택한 종교가 해방 이후에도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종교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일제와 미군정, 6·25, 이승만의 친미 정권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신흥종교는 해산, 위축, 분열 등의 과정을 거쳐 은둔과 폐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와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과

21) 『행복어사전』1, 311면.

22) 위의 책, 313면.

23) “캄보디아는 전설 속의 왕자 같은 시아누크가 군림하고 있었던 곳인데 그 사람이 외유 중론논이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캄보디아의 낙일은 그때부터 시작했다. 내가 손질을 하고 있는 해설기사의 필자는 프랑스인이었는데 그는 원래 캄보디아는 시아누크와 같은 곡예사적인 처신으로만이 통치가 가능하고 국제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론놀의 반공정책이 도리어 공산세력과의 항복을 결과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익살도 있었다.”(『행복어사전』2, 94면.)

캄보디아의 론놀 정권이 쓰러진 것은 1975년 4월이다.

(『행복어사전』에서는 주요 서사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교정부원인 서재필이 교정하는 기사가 직접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 위의 기사는 단순히 캄보디아 정세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반공 정책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간첩’을 정권 안정의 도구로 삼는다. 이른바 빨갱이를 색출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동창, 친구, 가족, 친척, 안면 있는 사람 등을 엮어 넣었고, 혐의가 발견되거나 만들어지면 가차 없이 처형했다. 안과 밖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체제 바깥의 사람들을 차단했고, 그 경계에 위치한 경우에도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국가보안법, 반공법이라는 명목으로 처형했던 것이다.(김동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1, 2012, 155~161면 참고.) 이병주 역시 박정희의 군부 정권이 세력을 잡은 직후 필화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감되기에 이른다. 가혹하다 싶을 만큼 지나친 반공 정책이 오히려 공산세력에 항복하게 된다는 캄보디아의 정세 관련 기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반공 정책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행복어사전』의 서재필 역시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아 고초를 겪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스위스로 떠나는 결말을 맞게 된다.)

24) 윤승용, 앞의 책, 153면.

민족 문화에 대한 자각을 계기로 신흥종교가 새롭게 주목받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²⁵⁾ 이런 상황에서 신문사 교정부원이자 옥황상제교라는 신흥종교의 교조로 등장하는 윤두명의 존재는 당대 사회 분위기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옥황상제교 교조 윤두명은 신앙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풍토와 정신적 환경에서 생겨난 토착종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풍토도 풍습도 취향도 다른 나라에서 자라난 종교를 믿어 광신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토속적 종교라면 우리의 생리나 병리에 잘 맞을 것”이라는 토착종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토착종교 역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신문사의 교정 부원이자 옥황상제교의 교조로 활동했던 윤두명은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종교 단체의 장이라는 것, 교도 가운데 간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교도들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거두어들인 것을 명목으로 입건되기에 이른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상제교 본부인 윤두명의 집으로 찾아가던 서재필은 윤두명의 서재에서 라인홀드 니버(Niebuhr, Reinhold)²⁶⁾의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 속에 쓰인 메모를 발견한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개인이 사람을 얻거꾸 서넛만 죽이면 숨과 마음이 가빠져 그 이상의 행동은 도저히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당의 이름, 국가의 이름으로는 한꺼번에 수만 명을 죽여도 눈썹 한 번 깜빡하지 않을 만큼 태연할 수가 있다. 결국 죽이는 행위는 개인의 행위로서밖에 할 수 없는데 말이다…….’²⁷⁾

25) 이재현, 『1970년대 이후 한국신흥종교의 현황과 전망』, 『신흥종교연구』 3, 한국신흥종교학회, 2000, 13~15면.

26) 1892~1971.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미국의 변증법 신학의 대표자. 1929~33년의 세계적 대공황의 시기에 ‘위기의 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의 입장을 세웠는데, 그 후 유럽에 있어서 이 파의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을 설교한 것과는 달리, 그는 인간, 윤리, 역사 등 현실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사자(使者)임과 동시에 피조물로서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면성(二面性)을 갖는다. 이것을 잊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거기에서 죄악이 생긴다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자유의지와 신의 의지가 충돌하는 무대이며, 인간은 이것을 인식을 통해 꿰뚫어볼 수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개조 등은 단념해야 하고 ‘모든 역사는 타협이다’라고 생각했다.(철학사 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그러니 조직의 힘은 산술적인 집합이 아니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양심의 부담에서 해방된다. 조직에의 복종에 최고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니버는 조직의 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강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²⁸⁾

옥황상제교의 교조인 윤두명은 일견 니버의 사상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해석은 전혀 다르다.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지만, 사회는 종종 민족적·계급적·인종적 충동이나 집단적 이기심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²⁹⁾ 윤두명은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조직원으로서의 인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니버의 인식을 “강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원한을 잘 가꾸고, 그것이 옥황상제라는 신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분출되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 믿으며 니버의 사상을 옥황상제교의 교세 확보를 위한 방법론으로 삼는다. 개인으로서의 이뤄내지 못할 원한의 극복도 옥황상제라는 신의 이름으로 모인 조직에 의해서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한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윤두명은 포교에 힘썼고 완벽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돈을 모아 세력을 다지려고 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파괴되어도 전체론 온전하다고? 그럼 자네나 우리가 그 부분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치면 우리는 죽어도 전체는 온전하다고 좋아할 수 있겠나? 섭리가 하는 일이니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나?”³⁰⁾

윤두명의 이런 생각에 서재필은 강하게 반발한다. 개인의 존재도 전체의 유지·발전이라는 틀 안에서만 인정하는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조직과 전체

27) 『행복어사전』3, 160면.

28) 위의 책, 161면.

29) 라인홀드 니버,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13.

30) 『행복어사전』4, 272면.

에 앞서는 개인의 자유로움이 강조되는 자유주의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재필의 입을 빌린 이병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조직의 힘을 길러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윤두명의 의지가 그가 스스로 힘이라고 생각했던 조직과 힘의 근원인 돈에 의해 좌절되는 것으로 구현된다. 옥황상제교의 교조로서 절대적이었던 윤두명의 위령이 “돈이 많이 모이고부턴” 약해지고, 교조에 대한 믿음 역시 금전적 문제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교단 내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병주는 『니르바나의 꽃』³¹⁾에서 위림이라는 인물을 통해 “종교건 종교적인 것이건,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면 정치화된다.”는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금교’라는 신흥종교를 둘러싸고 서사가 진행되는 『니르바나의 꽃』에서 위림은 ‘상제교’를 창시해 세계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제자 한동진을 보며 중요한 것은 종교의 종류나 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한다. ‘섭리’를 믿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하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꼭 종교를 만들려 하는 데에 무리가 있고 오만이 따른다는 것이다. 위림은 ‘집단→신도→질서→위계→권위→돈→계략→사기’로 이어지는 것이 종교의 정치화 과정이고, 정치화로 인해 종교는 그 본위를 잃게 된다고 보았다.³²⁾

실제로 이병주는 『사상과 정치와의 사이』³³⁾라는 칼럼에서 공산당을 예로 들며 힘이 강한 조직일수록 배타성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종내는 악을 낳게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상이나 주장이 실제에 있어서 보람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순이자 딜레마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생의 실상이라고 설명한다.

31) 1985년 1월부터 1987년 2월까지 『문학사상』에 연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87년 행림출판 간행본을 대상으로 한다. ‘목련정사’라는 공간과 ‘금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32) 『니르바나의 꽃』2, 322~323면. (“(…) 그 무리와 오만이 결국에 가서 정치를 필요로 한다. 왜? 신도를 모아야 하니까. 집단을 이뤄야 하니까. 집단이 있는 곳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를 세우려면 위계가 있어야 하고 위계를 만들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권위를 권위로서 작용케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만들려면 뭔가 계략이 있어야 하고, 그 계략이 지나치면 사기가 되어야 하고, 이래저래 그 종교는 급기야 정치적인 집단이 되고 만다, 이거야.”)

33) 이병주, 『1979』, 세운문화사, 1978, 34면 참고.

『행복어사전』의 옥황상제교가 집단의 힘을 키우려다 해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니르바나의 꽃』에서 금교는 애초부터 계략과 사기로 인해 힘(돈)을 모았고 그 힘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진다. 옥황상제교와 금교는 조직화 과정에서의 정치화로 인해 위기에 처했고, 정치적으로 변질된 종교 집단이 갖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속성 때문에 와해된 것이다. 이는 종교가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세상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병주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하다.

3. 알레고리적 장치로서의 종교

그렇다면 이병주의 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이병주의 소설에서 종교, 특히 맹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일면을 가진 종교가 부정적인 견지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의 정치화가 오히려 종교 자체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병주 소설에서 ‘종교’가 단지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한다고 읽는 것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행복어사전』에서 김소영을 면회하러 간 교도소에서 서재필은 상제교도이자 후배인 정진동을 우연히 만난다. 윤두명을 면회하러 온 정진동은 서재필에게 “자기 이외의 뭔가를 믿는다는 건 좋은 일”이라며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모두가 섭리의 작용”이므로 “열심히 기도하여 섭리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로 상제 믿기를 권한다. 이에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인류에 엄청난 해독을 끼친 게 뭐 줄 아나? 신앙이야, 믿음이야. 인정만 하면 될 일을 믿는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불행한 사건이 생긴 거다. 유럽 중세의 종교 재판이란 것도 천주님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이씨왕조의 천주교도 학살도 유교를 너무 믿은 탓이다. 자본주의의 탈은 돈의 힘을 너무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다시 말해 인류의 불행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해나가면 될 것을 뭇 한 가지를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통에 빚어진 거야. 태양은 강렬하다. 태양 없인 지구가 사멸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태양이 강력한 존재라고 해서 꼭 그걸 믿어야 되나? 가령 섭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군의 말따마나 옥황상제라고 하면, 그리고 만일 그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걸…….”³⁴⁾

여타의 소설에서 종교에 냉소로 일관하던 이병주의 인물들은 『행복어사전』의 서재필의 입을 통해 종교 문제를 사상의 문제와 연결시켜 강하게 비판한다. 역사의 해(害)로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종교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서재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한 서재필의 논리는 종교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긋난 믿음이 불러온 비극적 역사의 예시들은 “자본주의의 탈은 돈의 힘을 너무 믿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치환되며, “인류의 불행은 몇 한 가지를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통에 빚어”졌다는 인식으로 확장된다. 마르크스주의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대서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³⁵⁾는 이병주의 인식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병주는 근현대사의 격랑을 몸소 겪어내었고 그것을 소설을 통해 기록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뉜 이념의 갈등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 시간이 거듭될수록 심화되어 갔다. 이병주는 이에 대한 원인을 사상에 대한 맹목에서 찾은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사상에 대한 맹목은 집단을 형성하려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힘을 행사하고자 했으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략과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6·25전쟁은 사상에 대한 맹목이 극단적 형태로 발현된 비극인 것이다.

또한 4·19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독재에서 놓여나자 국내 정세는 다소 안정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무렵 국제신보의 주필로 근무하던 이병주는 조국 부재의 사상을 담은 논설과 통일의 중요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논설을 쓰는데, 5·16

34) 『행복어사전』3, 273~274면.

35) 이병주, 김윤식·김중희 편, 『사상과 이데올로기』, 『문학을 위한 변명』, 바이북스, 2010, 88~89면.)

이후 이 두 편의 논설이 문제가 되어 2년 7개월 간 복역한다. 사상에 대한 맹목으로 일궈진 역사 속에서 생사를 뒤흔드는 경험을 했던 이병주가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해 거부할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병주를 포함한 학병 세대는 3·1운동을 전후해서 태어났고 그 후의 반동기 속에서 확연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 성장했다. 이들보다 한 세대 앞의 사람들은 친일이면 친일, 반일이면 반일로 어떤 뚜렷한 자신의 입장을 가졌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³⁶⁾ 이병주 자신이 말한 바처럼 그들은 ‘일본 민족과 일제 통치에 대한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고 텔리케이트한 면’³⁷⁾이 많았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감각을 바탕으로 보자면 이병주는 신앙이나 신념 그 자체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과 신념이 낳은 비극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병주의 결론이 허망하게 읽히지 않는 것은 그것이 추상적인 관념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뎌야 했던 많은 사건들이 신념에 대한 맹목이 빚어낸 과오의 산물이었으며, 이병주는 그러한 역사 안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희생의 몫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병주는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 종교를 이데올로기, 도덕, 과학과 병치시키고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신앙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직접 밝히기도 한다.

“내가 틀렸는지 몰라도 요즘 돼가는 꼴이 모두 극단인 것 같아요. 좌익은 좌익대로 과격하고, 우익은 우익대로 과격하고……. 과격하지 않은 사람의 설 자리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계속 철학을 한다고 해도 그 철학을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가족의 평화, 극히 소시민적인 의식을 가꾸어 고독하게 살아가는 길밖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

그 신앙 또한 과격하니 야단입니다.

(…)

허망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가 전부 허망

36) 강심호, 앞의 책, 195면.

37) 남재희·이병주 대담, 『회색군상의 논리』, 『세대』, 1974, 5, 239면 참고.

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덕도 허망, 과학도 허망, 그럴 바에야 조그마하나마 사랑만이라도 가꾸기 위해서 그 방향의 허망만이라도 허망이 아닌 것처럼 꾸며야죠.”³⁸⁾

『산하』의 이동식은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와 신앙이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는 상황에 탄식을 금치 못한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덕이나 과학도 그것이 지나쳐 인간의 삶을 해치고 폐쇄하게 만든다면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신앙과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미망의 산물’이며 ‘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중심부에 놓여야 하는 것은 신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랑’이며, 이는 이병주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줄곧 지향해 오던 바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병주는 종교와 관련된 일련의 서사를 통해 종교 자체가 가지는 맹목성과 자기모순, 종교의 정치화로 인한 폐단과 같은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국의 근대사가 낳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병주의 소설에서 종교가 알레고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알레고리는 흔히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알레고리아(allegoria)를 어원으로 이종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을 지칭한다. 말 그대로의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의 유형으로 두 가지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읽히고 이해되며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알레고리인 것이다.⁴⁰⁾ 이병주는 미군정을 거치면서 득세하고 사회 문제에게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모자라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강제하려 하는 종교의 습성에서 그 자신이 몸소 겪었던 폭압적인 이데올로기와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비판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정한 지점에 매몰되어 해를 끼치는 사상이나 신앙에

38) 『산하』2, 280면.

39) 손혜숙은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비평문학』52, 한국비평문학회, 2014.)에서 「소설 알렉산드리아」의 이종적 공간설정을 검열의 위험을 피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체제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선택한 알레고리적 장치라고 분석한 바 있다.

40)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305~307면.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406~407면.

대한 대안으로 ‘문학’을 선택했음을 밝힌다.

“냉철한 이상적 분석을 견디어낼 만한 종교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이성적인 분석을 넘은 어떤 성역을 설정해놓은 것이 종교이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미망을 이용한 애매한 박명지대를 신비화하려는 게 종교 아닙니까. 문학은 그러한 성역, 그러한 박명지대를 납득하지 못하고 인간을 때론 한없이 강하고, 때론 한없이 약하며 때론 아름답고, 때론 추하고, 때론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론 고통하기 짝이 없는 실상 그대로를 파악하여, 가능하다면 그대로 살아볼 만한 것이 인생이란 증명을 해보려는 작업이란 거죠. 종교처럼 사람의 정신에 마취를 걸지 않고 깨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써 같이 인생의 어느 국면을 직시해보자는 마음먹이기도 하구요. 하느님이니 천주님이니 삼재님이니 하는 부름을 앞세우지 않고 그저 허공을 향해 지성을 드리는 기도라고 할까요. 그걸 나는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충실하려는 겁니다.”⁴¹⁾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서재필은 문학에 더 큰 의의를 둔다면서 “인생의 어느 국면을 직시”하기 위해 문학을 선택했다고 말한다.⁴²⁾ ‘인생의 어느 국면을 직시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 이병주가 추구하는 문학 일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이데올로기와 문학』⁴³⁾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병주는 문학가가 정치가나 혁명가의 역할까지 하려해서는 곤란하고, 대

41) 『행복어사전』4, 203면.

42) 『니르바나의 꽃』의 위림 역시 종교에 대한 대안으로 문학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위림)은 문학으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성종교가 과학적인 검증을 감당할 수 없어 현대인의 이성이 승인할 바 못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2권, 327면, 괄호 안은 글쓴이))

43)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문학은 필연적으로 비굴하게 된다. 문학이 바다이면 이데올로기는 강줄기다. 문학이 이데올로기를 재단할망정, 이데올로기의 재단을 받아선 안 된다. 문학이 이데올로기를 가르칠망정 이데올로기의 제자가 될 순 없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이고, 문학은 정치까지를 포함한 인생을 상대로 하는, 어디까지나 활달해야 할 작업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이데올로기를 가진 문학을 존중하는 폐단을 낳기도 했는데, 그 책임이 비록 문학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특수 사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문학인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문학이 봉사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오직 인간일 뿐이다.”(이병주, 김윤식·김종희 편, 『이데올로기와 문학』, 앞의 책, 122~123면.)

의를 위한 문학보다는 주위의 삶과 사람에 충실한 문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로 인해 시대와 사회가 가진 문제를 등한시하여 비겁자나 패배주의의 문학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지라도 문학은 오로지 문학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진정한 문학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문학이 진정 문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와는 결별해야 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학의 소명이 이데올로기의 전달이나 이데올로기의 시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있다는 신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신념은 이병주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글쓰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병주의 많은 작품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의 아픔을 다루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이병주는 알레고리적 장치로 ‘종교’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 억압되고 강제될 수밖에 없던 역사의 허망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제압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문학적 신념을 피력하고자 한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발현되는 이병주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종교는 유구한 세월 동안 인간의 삶 언저리 혹은 중심부에서 인간을 지탱하거나 휘두르는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시대나 인종, 민족에 따라 나타나는 종교의 형태와 계율은 각기 다르지만 인간이 종교에 기대하고 부여하는 의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병주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종교에 맹목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 인물에 한결같이 종교에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비창』의 구인상과 『산하』의 이동식, 『행복어사전』의 서재필과 같은 인물을 통해 잘 드러난다.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잔인하게 서로를 할قي었던 6·25를 지나, 반공을 빌미로 개인을 억압했던 군부 정권이 이병주에게 남긴

키워드는 ‘인간’과 ‘자유’일 것이다. 이병주는 인간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직접 드러낸다.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고 반영하는 주요한 요소인 종교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나타남을 몇몇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병주는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종교, 본질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종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사상 전반에 내재된 자유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병주 소설에 나타나는 ‘종교’는 알레고리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병주는 지식인을 초점자로 내세워 정치 내지는 신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를 꺼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이병주 사상의 핵심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병주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에는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설의 주요 인물이 겪는 고난과 갈등을 통해 직접 드러나기도 하지만 종교라는 알레고리적 장치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구현된다. 결국 이병주는 ‘종교’라는 알레고리적 장치를 통해 문학의 핵심에 놓여야 할 것이 ‘인간’이라는 자신의 문학적 태도와 신념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이병주, 『내일 없는 그날』, 문이당, 1989.

_____, 『비창』, 문예출판사, 1984.

_____, 『니르바나의 꽃』, 행림출판, 1987.

_____, 『산하』, 한길사, 2006.

_____, 『행복어사전』, 한길사, 2006.

이병주, 『1979』, 세운문화사, 1978.

남재희 · 이병주 대담, 『회색군상의 논리』, 『세대』, 1974. 5.

이병주, 김윤식 · 김종희 편, 『문학을 위한 변명』, 바이북스, 2010.

2. 논저

강심호, 『이병주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고인환, 『이병주 중 · 단편 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자의식 연구』, 『국제어문』 48, 2010.

곽상인,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의식 고찰』, 『인문연구』 6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권동우,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화와 신종교』, 『신종교연구』 28, 한국신종교학회, 2013.

김병로, 『다성적 서사담론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확장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집』 2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박종렬, 『실록소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론』, 『현대문학이론연구』 29,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6.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 『비평문학』 52, 한국비평문학

- 회, 2014.
- 안경환, 『이병주와 그의 시대』, 『2009 이병주 하동 국제 문학제 자료집』, 이병주기념사업회, 2009.
- 우재명,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 분석과 가톨릭 교회의 대처 방안』, 『사목정보』5, 2012.
- 이동재, 『분단시대의 휴머니즘과 문학론-이병주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이재현, 『1970년대 이후 한국신종교의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3, 한국신종교학회, 2000.
- 이형기, 『소설 '관부연락선'과 40년대 현대사의 재조명』, 『한국현대 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 임현영, 『현대소설과 이념문제-이병주의 『지리산』론』,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 정찬영,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지리산』론』, 『문창어문논집』 36, 문창어문학회, 1999.
- 정호웅, 『지리산론』,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 조갑상,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현대소설연구』1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 철학사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 추선진, 『이병주 소설의 원형으로서의 『내일 없는 그날』』, 『인문학연구』 제21호,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2.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 R. 니버,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13.

【국문초록】

이 글은 이병주의 소설에서 종교에 관한 문제가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종교를 다루는 방식 역시 일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핵심 서사에서 빚겨나 있는 종교라는 요소가 다양한 작품에서 동일하게 제시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이병주의 소설에서 몇몇 여성인물의 경우 종교에 맹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런 여성인물을 바라보는 지식인 남성 인물의 경우 종교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행복어사전』에서는 옥황상제교라는 유사종교 문제를 통해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한다. 종교가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직의 힘을 가지려 하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이병주는 종교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종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사를 가로지르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부각하고 비판하기 위한 알레고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 억압되고 강제될 수밖에 없던 지난 역사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제압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다. 결국 ‘종교’라는 알레고리적 장치를 통해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이병주 문학의 핵심에 놓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문학적 신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이병주, 종교, 알레고리, 자유, 문학, 인간

Meaning of Religion Manifested in Lee, Byungju's Novel

Jeong mi jin

This writing starts with the fact that problems about religion are frequently mentioned and the method of dealing with religion is also consistently shown in Lee, Byungju's novels. In addition, this writing judges that there might be a special meaning in that the religious factor, which is rarely addressed in key description of common novels, is uniformly suggested in diverse works; thus, this writing intended to make its meaning clear.

In case of some female characters in Lee, Byungju's novels, they show an implicit attitude towards religion, but that is just nominal, and in case of an intellectual male character looking at such a female character, the male character shows a cynical attitude. In addition, Lee, Byungju's novel 『Happiness Word Dictionary』, the writer suggests the limit of religion through the pseudo religion problem of the so-called Okhwangsangje religious group. The key point in religion stated in that novel is that when religion intends to have the strength of an organization beyond the role of religion, the religion cannot but degenerate into exclusivism and egotism.

However, the writer Lee, Byungju doesn't address religion in order to point out and criticize the limit of religion itself, but uses religion as

allegorical device for highlighting and criticizing a problem of ideology that cut across through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rough this, the writer exposes the futility of the past history where a personal choice couldn't but be suppressed and forced, and reveals his belief that it's definitely impossible to accept anything which oppresses freedom. After all, the writer repeatedly puts emphasis on the literary attitude of 'a Human', which is the very essence of Lee, byungju literature irrespective of religion and ideology, through the allegorical device of 'religion.'

Key words : Lee, Byungju, Religion, Allegory, Freedom, Literature, Human

이 논문은 2014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